

제 45 강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교훈과 수난(마태복음 연구 II)

■ 성경본문 마태복음 16:21-28:20 ■

프렐류드(Prelude)



여리고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자신이 받아야 하는 수난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베드로의 고백까지 받았습니다(마 16:16). 그리고 변화산에서 변모하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실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마 17장).

그리고 예수님은 민중이 크게 환영하는 길을 뚫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정화, 혼인잔치

비유,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저주, 유대인이 신성

시하는 성전붕괴, 재림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비밀을 읽지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직후 가롯 유다의 배신을 시작으로 제자들은 모두 선생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베드로마저 선생님을 부인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께서 홀로 가야하는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자신을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를 외쳤습니다(마 27: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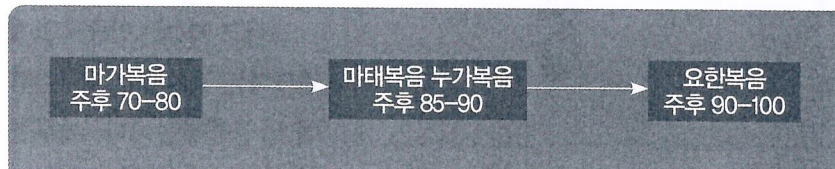
그러나 이때 하나님은 ‘성전 휘장’을 찢으시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을 여시며(마 27:51-52) 아들과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하고 있는 아들과 함께 아파하고 계셨습니다. 이 고통은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기 비움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을 새 생명으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에 비해 부활 이후의 사건을 크게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위임’(The Great Commission)으로 알려진 마지막 분부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제자와 교회가 이 지상에 존재하는 이유이고 또 양식이었습니다.

I. 주요 내용

1. 그리스도인의 생활(마태복음 18:1-35)
2. 재물 포기와 제자직(마태복음 19-22장)
3. 재림과 심판에 관한 비유(마태복음 23-25장)
4. 수난과 부활에 관한 교훈(마태복음 26-28장)

〈연대표〉



II. 시대적 배경

예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때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히 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분노가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율법을 무효화 할 뿐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는 예수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누명을 씌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선생님을 만난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 예수공동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유대와 땅끝까지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1세기 말경, 압니아(Yamnia)를 중심으로 흩어진 민심과 율법을 되살리려는 유대주의 지도자들은 큰 장애물이 된 그리스도교인들을 회당에서 축출하고 저주하는 기도문을 만들어 회당에서 읽었습니다. 이때 마태공동체는 제자-사도 마태를 통해 들은 예수의 행적과 말씀을 기록하여 유대교와 율법을 반교하고, 신도들의 신앙을 독려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신앙훈련의 교본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III. 말씀과 해석

1. 그리스도인의 생활(마태복음 18:1-35)

마태복음 18장은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거나 무시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가부장적 전통 속에서 소외되어온 계층이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마 18:1)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는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마 18:4)고 답하셨습니다. 어린이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입니다. 부모나 누구도 어린이라는 이유로 어린이를 소유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객체(object)가 아니라는 인간 선언이었습니다.(마 19:14) 이어

예수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마 18:5)이라고 하셨습니다.

인간 사랑은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지 말 것(마 18:6, 10). 형제를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해주는(마 18:22) 사랑으로 확대해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죄지는 자에 대한 용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마 18:35).

2. 재물 포기와 제자직(마태복음 19-22장)

마태복음은 일관성 있게 좁은 길과 넓은 길, 하나님과 재물을 대비시켜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요구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마 6:24).

부자 청년 이야기(마 19:16), 제 삼시와 제 육시와 제 구시와 제 십일시에 고용된 품꾼 모두에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지급되었다는 포도원 비유(마 20:1-10),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 재물에만 눈이 어두워진 주인이 아들까지 죽인 비유(마 21:33-41)는 인간은 누구나 노동의 노예가 아니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인간은 노동과 일의 주인이요, 주체라는 사상이었습니다.

이 사상은 2000년 전 주인과 종, 상전과 노예라는 절대계급사회에 던지는 일대 충격이었으며, 이 사상은 율법과 정의를 훨씬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3. 재림과 심판에 관한 비유(마태복음 23-25장)

산상설교의 팔복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의 삶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마 5:3-10)는 ‘외면’(外面)보다는 ‘내면’(內面)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내면은 ‘동기’(動機-Motive)를 의미합니다. 특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라고 저주하신(마 23:13, 15, 16, 23, 25, 27, 29)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의 위선 때문이었습니다. 거룩을 빙자한 내

면의 타락이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화과나무 비유(마 24:32-36), 노아시대 비유(마 24:37-39), 도둑 비유(마 24:42-44), 신실한 종과 신실치 못한 종의 비유(마 24:45-51), 열 처녀 비유(마 25:1-13), 달란트 비유(마 25:14-30), 최후 심판 비유(마 25:31-46) 7가지 비유를 들어 최후 심판과 재림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시는 날과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마 24:36, 42, 44, 50, 25:13)도 일러 주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하셨습니다. 도적같이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깨어 있는 자만이 영접 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마 25:13),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향하여 삶과 영혼을 열어놓은 사람입니다.

4. 수난과 부활에 관한 교훈(마태복음 26-28장)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활을 오랜 기간 예언해 온 구약의 성취라는 점을 강조합니다(마 26:24, 31, 54, 27:9-10, 35, 46).

창조 이후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거대한 계획안에서 하나님은 아들과 함께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십자가와 부활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다시 사신 부활은 구약의 성취이고 완성이었으며, 하나님나라가 시작되는 새 역사의 출발이었음을 강조합니다.

마태는 모세보다 큰이, 율법보다 큰 예수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IV. 성찰과 나눔

1. 마태복음은 강렬하리만큼 ‘반로마’, ‘반유대주의’ 사상을 담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반로마 사상은 주후(AD) 67년에 일어난 ‘유다-로마전쟁’에서 행한 로마인들의 횡포, 주후 70년 로마가 파괴한 예루살렘 성전, 73년 1,000명의 유대 유격대의 자결로 인해 민족의 뿌리까지 위협을 당하는 위기에서 이방 나라로 도피하여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의 비애가 깔려있었습니다. 바로 마태공동체가 그중의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반 로마주의가 태동하였습니다.

2. 마태복음의 반 로마주의와 반유대주의 사상은 그리스도교를 말살하려는 로마의 박해와 유대주의 핍박에 대하여 특히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대한 강력한 변증이었습니다. 모세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완성하신 메시아로 높여 이탈자를 막고 신앙을 지키는 이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마태복음은 이 갈등 속에서도 세계를 구원하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고 있으며, 동시에 아버지의 뜻 앞에 복종한 아들의 자기 비움을 높이고 있습니다.

4. 예수께서 선포하신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모든 권세를 심판하시고, 죄를 회개하는 개인과 국가는 은혜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누구든지 깨어서 맞이해야 하는 신앙과 소망을 교훈하고 있습니다.